세계문화유산 날란다 대학, 보존 과제 남아

인도 정부, 유네스코 등재 후 관리 문제 '골머리'

세계 최초 종합대학이자 불교대학으로 알려진 인도 날란다(Nalanda) 대학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가운데, 인도 정부가 날란다 대학 보존과 발굴이란 과제에 직면했다.

날란다 대학은 현재 2020년 완공을 목표로 발굴 작업 중이다. 현재까지 발굴된 10% 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구역은 일반인들 거주밀집지역에 위치해있기 때문에 작업이 순탄치 않다. 이에 인도 정부는 지역민들과 협의, 제반시설 부족 등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인도 언론 'The Times Of India (TOI)'는 7월 24일 "인도 정부가 유네스코 등재 후 협약기준 충족을 위해 보존 및 발굴 작업에 박차를 가했다"며 "하지만 날란다 전 구역은 기본 제반시설의 부족, 거주밀집, 비위생적 환경 등으로 인해 홍역을 치르고 있다. 특히 지역민들에게 마을이 날란다 대학 부지 위에 위치한단 사실을 알리는 것이 가장 어렵다"고 전했다.

이팍 아난드 발굴 관계자는 "지역민들에게 발굴이 필요한 세계문화유적 위에 살고 있단 문제의식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하지만 그들의 생계를 위협하지 않도록 충분히 소통 및 협의할 것"이라 말했다.

날란다 대학의 총 부지는 약 120만㎡으로, 발굴 작업을 맡은 인도고고학조사단(Archaeological Survey of India, ASI)은 마을 곳곳에 흩어진 방대한 양의 유물 보존에 애를 먹고 있다. 발굴 관계자는 "유물 수가 워낙 많아 진품을 일일이 구별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유물도록도 갖추지 못한 상황"이라며 고충을 털어놨다.

전체 중 현재 10%만 발굴돼
나머지 지역 마을 위치해 '난항'
"지역민과 소통 · 협의 중요"
방대한 유물 보존도 어려워

인도 정부는 날란다 대학을 추후 세계적 관광지로 개발할 계획을 갖고 있다. 'TOI'는 현장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날란다 대학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후 인도 정부는 이 지역을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해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며 "인도 내 다른 문화유산과 함께 연계해 관광벨트를 조성할 것"이라 언급했다.


세계 최초 불교대학 날란다(Nalanda • 사진) 대학이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 등재 후 보존 • 관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사진출처=indiansnews

한편 날란다 대학은 인도 비하르 주(州) 파트나 남서쪽, 옛 마가다왕국 수도 왕사성 북쪽에 위치하며, 기원후 400년경 쿠마라굽타 1세(415~454) 때 건축됐다. 현장 스님은 7세기 경 저술한 여행기서 날란다 대학 유적에 관해 언급했으며, 고고학단은 1862년 이 여행기를 발견한 후 150년이 지나 날란다 대학 발굴에 착수했다.

아팍 아난드는 "前 발굴 책임자 라빈드라 팬스 학장의 노력으로 유적터가 온전히 보전될 수 있었다"며 "특히 현장 스님 여행기서 '타라(Tara) 사원 유적'으로 일컬어진 '데비 마 까 틸라 묘지'도 온전히 보존됐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날란다 대학 부지 남쪽에 위치한 부처님 머리카락과 손톱을 모신 사리탑 등이 현장 스님 여행기에 언급된 곳과 일치 한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마음챙김, 불안장애 청소년 치료효과 '탁월'

신시내티 대학 연구진, 12주 간 연구결과 발표

마음챙김명상의 심리치유 효과는 어디까지 일까? 마음챙김명상이 성장기 청소년들의 불안장애 치료에도 탁월하단 연구결과가 발표돼 다시 한 번 주목을 끌고 있다.

건강라이프 사이트 'collective-evolution(CE)'는 8월 2일 "서양 의학계는 정신건강 치료를 위해 보통 항우울제 등 약물사용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비교적 건강한 치유법이 개발된다면 사람들이 약물에 의존할까"라며 미국 신시내티 대학(University of Cincinnati) 연구진들의 연구결과를 보도했다.

연구팀은 9~16세 불안장애 청소년을 조사집단으로 구성, 12주 동안 자기공명영상법(MRI) 등을 활용해 마음챙김명상을 연습하는 과정을 연구했다.

공동 연구팀장을 맡은 시안 코튼(Sian Cotton) 신시내티 대학 통합건강센터 이사는 "마음챙김명상을 하는 동안 환자들의 불안은 크게 감소했다. 명상에 집중한 환자들은 외부적인 것들에 대한 걱정을 떨쳐버렸다"며 "이러한 통합적인 연구결과가 전통적인 치료법을 확산시키고, 심리적 고통에 대처할 수 있는 새 전략을 제공할 것"이라 설명했다.


마음챙김명상이 불안장애를 진단받은 청소년들 치료에 효과적이란 연구결과가 발표돼 화제다. 사진출처=collective-evolution

그러면서 코튼 이사는 "마음챙김명상에 기반을 둔 치료법은 부정적인 감정과 사상에 사로잡힌 환자들로 하여금 의식적으로 생각과 감정, 신체 감각을 현재에 집중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코튼 이사는 이러한 방법이 통원 및 약물 치료를 기피했던 우울증 환자들에게 매우 효과적인 대체 치료법이 될 것이라 전망했다.

코튼 이사는 "불안장애 진단을 받은 많은 아이들이 스트레스에 적절히 대처할 수 없다. 병원가기를 꺼려하기 때문"이라며 "마음챙김명상은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제공할 뿐 아니라 약물치료의 부작용도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12주 간 연구는 마음챙김명상이 인지 및 감정처리를 담당하는 뇌신경 활동을 활발히 작용시키는 데 중요한 작용을 하며, 혈액 속 포도당 양을 일정히 유지시키는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는 데 효과가 있단 결과를 드러냈다.

연구부팀장 제프리 스트론 박사는 "뇌기능 활동 촉진으로 인해 불안장애 청소년들의 감정절제능력이 향상될 것"이라며 "뇌 활동에 관련한 부수적 효과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박아름 기자

세계 최대 불교학원 주거지 철거 '시작'

중국 정부, 라룽가르 승려 정원 5천명으로 제한 압박

7월 말, 철거 작업 들어가
'반중심리 조장'이 원인
티베트인들, "탄압행위" 반발
1만 비구 · 비구니 거주 추정
10월까지 절반으로 축소 계획

중국 정부가 티베트 최대 불교학원인 '라룽가르 불교아카데미' 주변 주거 시설의 철거를 시작해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태국언론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7월 26일(현지시간) "중국 정부가 티베트 최대 불교 강원 주변 시설을 철거하고 나서자, 티베트인들은 이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10월 30일 전까지 라룽가르 사원 수행 승려를 5000명 까지 감축한단 계획 아래 승려들의 주거지인 쪽방들에 대한 부분 철거에 들어갔다.

앞서 지난 6월 중국 당국은 티베트 불교 최대 강원 '라룽가르 불교아카데미'가 반중(反中) 심리를 조장한단 의심을 제기, 이에 대한 탄압으로 학승 2,200명 감축을 명령했다. 또한 중국 지방 정부는 라룽가르 주변에 비구 · 비구니 스님 1만 여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2017년까지 거주인구를 5000명으로 제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인도 반중(反中)사이트 '티베트의 소리(西藏之聲)'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제6차 티베트 공작 좌담회와 제2차 전국 종교공작회의에서 내려진 결정을 근거로 비구 · 비구니 정원을 5000명 이내로 제한했다.

한 티베트인은 개인 SNS 계정에 "중국 당국의 명령으로 라룽가르 학승 63%가 떠나게 됐다"며 "지난해에도 이미 약 1000명 승려와 비구니가 내쫓겼다"고 주장했다.

미국에 본부를 둔 국제티베트독립운동(International Campaign for Tibet) 마테오 마테치 회장은 "중국 정부의 제한 정책은 티베트 불교도들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며 "중국의 위협적인 통제 방식은 티베트인들로 하여금 전 세계인들에게 그들이 처한 상황을 알리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중국 당국의 라룽가르 불교아카데미에 대한 탄압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1999년 6월 중국공산당은 24호 문건을 통해 라룽가르의 정비를 시작했다. 또한 2001년 8월 기숙사를 헐고 아카데미 입구에 경찰을 상주시켜 출입자의 신분증을 조사했다.

중국은 라룽가르 학승들이 2013년 5월 티베트 자치구 나취(那曲)지구 비루(比如)현에서 발생한 광산 개발에 항의한 대규모 시위에 개입하는 등 전국 티베트족 집단 거주지에서 반중 시위와 활동을 배후 조종한다고 믿고 있다.

라룽가르 아카데미는 티베트 자치구 설타르에 있는 세계에서 가장 큰 불교 연구소로 1만 명 이상 승려 및 불자가 공부하고 있으며, 연구소를 중심으로 스님들이 거주하는 9,000여 채의 쪽방촌이 조성돼 있다.

티베트에서 가장 오랜 불교종파인 닝마(Nyingma)파의 불교학교이기도 한 이곳은 최초로 여성들의 입학을 허가한 바 있다. 이에 100여 명 비구니 스님들은 이곳에서 페미니즘 연구와 더불어 불교여성인권 관련 책 · 잡지를 출간하며 불교 여성인권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보형 객원기자

베트남 스님, 시줏돈 26만 불 도박 탕진

美 당국, 징역 30개월 선고 및 추방 명령

미국의 한 스님이 카지노로 시줏돈 26만여 달러를 탕진해 징역 30개월을 선고받았다.

뉴올리언즈 언론 '놀라닷컴'은 "미국 지방 법원 판사 도널드 웰터는 카지노를 위해 송금 사기의 무죄를 주장한 베트남계 미국인 강응우옌르 스님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웰터 판사는 강응우옌르 스님에게 횡령한 시줏돈을 전액 지불할 것을 주문했으며, 감옥에서 석방 후 베트남으로 추방될 수 있다고 당국은 전했다.

강응우옌르 스님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사우스웨스트 루이지애나 지역의 베트남 불교사찰의 주지를 맡았다. 그는 2013년부터 2014년까지 레이크 찰스 카지노서 도박을 하며 미화 26만3000여 달러를 사찰 계좌서 빼돌려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현금자동지급기와 카지노 은행 직원들을 통해 돈을 인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동료 스님들로부터 그의 범죄행각을 감추기 위해 강응우옌르 스님은 사찰 재산신고를 허위로 신고하기도 했으며, 사람들이 잘 오지 않는 카지노에 가서 도박을 한 것으로 경찰 당국은 밝혔다.

이보형 객원기자

호연스님의
다라니기도독송 CD
소원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천상의 소리
호연 스님의 다라니 기도독송 CD
다라니는 미묘한 힘과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계속 독송하면 최고의 지혜를 얻으며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차량용, 선물용으로 좋습니다
구입 문의 02)971-4461 010-9885-6328

기도치료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전문기도치료법 1:1 또는 5인이하 실전교육을 상시합니다.
※ 기도 치료는 유사 사이비 의술이 아닌 부처님의 정법 의학입니다.


기도치료법 230P 값 19,300원
기도치료학 550P 값 24,300원
두권 구입 값 43,600원
• 부처님은 약 3천년 전부터 기도치료를 가르쳐주신 大醫王이십니다.
• 기도치료는 유사 사이비 대체 의술이 아닌 부처님의 정법에 의한 인류사에서 가장 오래된 질병치료법입니다.
• 캐나다에서 한의사 활동을 하고 계시는 석영창님은 그의 저서에서 "불교도들이 질병치료를 못한다는 것은 오히려 이상한 일이다"라고 했습니다.
• 위 2권의 책은 기도치료의 이론과 실제 사례를 현대적으로 풀이하여 누구든지 기도치료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의도한 서적입니다.
• 많은 불자님들이 이 책을 통해서 기도치료를 할 수 있게 된다면 자신의 건강증진은 물론 포교와 사찰운영에 큰 도움이 될것입니다.
전문기도치료사만 된다면 노후 걱정은 덜게 될 것입니다. 본인은 70대 중반입니다만 가끔 한달에 천만원이상의 수입을 볼때도 있습니다.
상담 및 책구입 : 010-2093-3385, 011-557-2773
주 소 : 경남 하동군 금남면 경충로 243-115
입금 온라인 : 611038-02-030104 우체국(정보석)
352-0943-7979-03 농 협(정보석)
(책은 입금 확인후 택배비 저자부담으로 즉시 배송해 드립니다)

불자와 사찰간의
다양한 소식, 뉴스, 혜택 등
모든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불교 대표 어플리케이션
절로
사찰의 다양한 소식을
절로에서 받아보세요!


불교 대표 어플리케이션 절로 다운로드
Google Play (안드로이드용)
App Store (아이폰용)
"절로" 검색 후 다운로드
절로 문의전화
불자/신도 무료이용
사찰/단체 이용문의
1644 - 9108